

영광군, 정책 참여 기회 확대 ‘청년부군수’ 운영

군 행정 현실적인 소통 강화 목표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지원 가능
16일까지 주요 현장활동 참여 등
오디션 방식 발표 면접 거쳐 선발

전라남도 영광군이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군 행정과의 현실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부군수’와 ‘청년정책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11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민선 8기 장세일 군수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청년을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닌 군정의 동반자이자 주체로 세우겠다는 군정 철학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제도다.

모집 분야는 △청년 부군수 1명 △청년 정책위원 14명으로 만 19세부터 45세 이하의 영광군 거주자 또는 관내에서 활동 중인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마감은 오는 16일까지다.

영광군이 추진중인 청년부군수 제도는 영광 청년을 대표하는 역할로 군수와 함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현장활동

이나 회의에 참여하며 청년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군정에 실질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청년정책위원은 청년부군수와 함께 청년정책 제안, 진단 및 평가 등을 통해 청년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과정과 정책추진 현장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접수는 이메일(magicexo@korea.kr) 또는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실 청년지원팀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서류 심사과 오디션 형식의 발표, 심층면접을 거

쳐 최종 선발된다. 활동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된다.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누리집 및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경험은 행정에 대한 신뢰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년이 군정에 함께하는 혁신적인 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담양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19일부터 23일까지

전라남도 담양군은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군청 문화행복동 3층 지방세 전산실에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중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창구는 특히 국세청의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등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중심으로 도움을 제공하며 단순 신고자의 경우 스스로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는 창구 방문 없이 PC(홈택스) 및 모바일(손택스)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세(위택스)가 자동 연계됨에 따라 간편하게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담양군 거주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2일까지 신고하고 별도 신청 없이 9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기간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고 일에 늦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담양=신재현 기자

1회 추경예산 311억원 증액 편성
담양군, 본예산 대비 5.9% ↑

전라남도 담양군은 지난 9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담양군 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예산은 본예산 5265억원보다 311억원(5.9%) 증가한 5576억원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2억원(5.8%), 특별회계가 9억원(10.9%) 각각 증액됐다.

군은 최근 지속된 경기침체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초점을 두고 이번 추경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세출 주요 항목으로는 △대전면 대치지구 뉴빌리지 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16억원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 54억원 △창업형 영농시설 및 스마트팜 인프라 구축 등 농업 분야 46억원 △유류세 연동 보조금 등 교통·물류 분야 33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순환형 매립지 정비 등 환경 분야 12억원, 관방제림 생육환경 개선 등 문화·관광 분야 10억원, 코로나19 예방 집중 등 보건 분야 7억원, 어르신 보행 안전사고 예방 등 공공질서·안전 분야 5억원, 국도비 반환금 등 기타 분야 32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담양군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한정된 자원 안에서 필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장성군, 개별주택가격 공시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전라남도 장성군이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11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역 내 주택 1만3117호에 대한 특성 조사와 한국부동산원 검증, 주택소유자 등 의견 청취, 장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다.

올해 가격은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전년 대비 1.84% 상승했다. 부동산가격알리미 누리집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9일까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성군 세무회계과로 제출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가격 적정성 등을 재조사해 6월26일까지 최종 개별주택가격을 조정·공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곡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지장목 제거 현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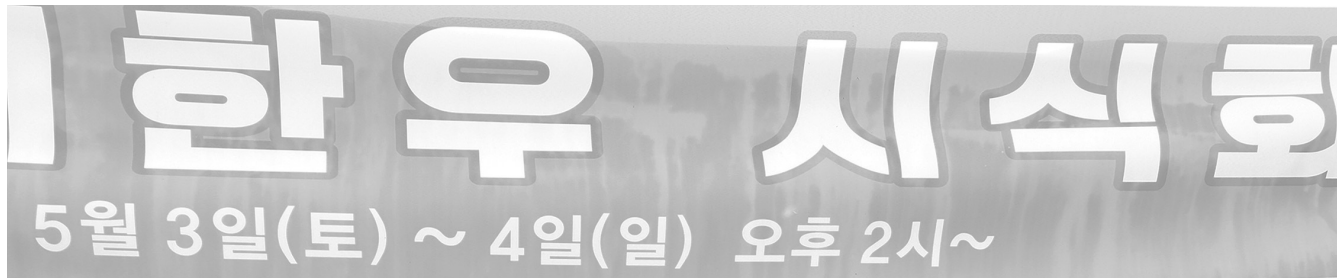
전라남도 곡성군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월15일~10월15일) 운영에앞서 지난 8일 산사태취약지역 현장 및 대피소를 점검하는 등 집중 관리에 나섰다.

11일 곡성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다가올 우기를 앞두고 산사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정창모 부군수의 지휘 아래 절개지 사면상태와 배수로 관리, 지장목 제거 현황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인근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피소 이용 절차와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곡성군은 현재 250개소의 산사태취약지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취약지역 외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지침에 따른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창모 곡성군 부군수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만큼, 산사태 예방사업과 주민 대피 체계를 정비해 군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김대영 기자



함평나비대축제 개최 기간인 지난 3~4일 축제장 일원에서 ‘천지한우 시식회’ 행사가 열리고 있다.

함평=김도윤 기자

함평군, 나비대축제 기간 지역 한우 우수성 알려

전라남도 함평군이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 기간 중 진행된 ‘천지한우 시식회’를 통해 함평 한우의 우수한 품질을 널리 알리며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11일 함평군에 따르면 (사)전국한우협회 함평군지부가 나비대축제를 맞아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축제장에서 개최한 ‘천지한우 시식회’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행사는 한우 소비 촉진과 함평 한우의 우수한 품질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정정 함평에서 자란 최고급 한우 등심 90kg이 준비돼 무료 한우 구이 시식을 진행했으며 이벤트 부스도 함께 운영돼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

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이번 시식회는 많은 관광객에게 함평 한우의 뛰어난 품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한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축산물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장성군, 경찰 합동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2차 피해 예방 목표

전라남도 장성군이 최근 장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상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장성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시 담당 공무원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다른 민원인과 공무원에 가해질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지침’에 따라 특이민원 비상대응반을 구성한 장성군은 이날 민원인 폭언·폭행 발생→가해 민원인 진정 유도→사전 고지 후 휴대용 보호장비로 녹화·녹음→비상벨 작동으로 경찰 및 안전요원 호출→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출동 경찰 인계 순으로 현장감 있게 훈련을 진행했다.

안보현 장성군 민원봉사과장은 “앞으



장성군과 지역 경찰이 합동으로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장성=김도윤 기자

로도 지속적인 특이민원 대응훈련 실시로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

는 민원실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